

‘통합·상생·어울림’ 나주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

사업비 30억원 투입, 옛 나주실내체육관 개보수 완공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우르는 화합과 상생의 공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나주시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통합체육시설인 ‘나주시 반다비 체육센터’가 문을 활짝 열었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11일 옛 실내체육관 전면 보수공사를 통해 재탄생한 반다비 체육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체육센터 명칭은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패럴림픽 공식 마스코트인 ‘반다비’에서 따왔다.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체육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화합의 공간 조성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왔다.

시는 1991년 건립된 후 지붕 누수 등 시설 노후화로 사용이 어려웠던 옛 실내체육관을 반다비 체육센터 시설로 활용하고자 지난해 3월 전면 재보수에 착수했다.

1년여 공사를 거쳐 문을 연 반다비 체육센터는 연면적 3849㎡·지상 2층 규모로 사업비 30억원(도비9억·시비21억)이 투입됐다.

센터엔 어울림 배구 등 다양한 종목을 치를 수 있는 정식 규격의 경기장 코트와 더불어 탁구실, e스포츠실, 공용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이 새롭게 들어섰다.

여기에 버튼식 자동문과 장애인 전용 승강기, 경기장 코트 벽면을 쿠션감이 좋



은 운동용 매트로 설치해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했다.

화장실 또한 기존 1개소에서 3개소, 주차 면수도 121대로 확충했다.

이날 개관식은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경과보고, 기념·축사, 테이프 커팅식, 시설 관람, 개관 기념 어울림 좌식배구 순으로

진행됐다.

윤병태 시장, 이재남 시의회의장과 지역 도·시의원, 장애인연합회, 체육회, 생활체육동호회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해 체육 활동을 매개로 한 지역 공동체 화합의 공간이 될 반다비 체육센터 새 출발을 축하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구례군, 주요 사업장 40개소 현장점검 실시

정책 체감도 높이고 주민 의견 반영한 실효성 있는 행정 추진

전남 구례군은 지역 내 주요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에 걸쳐 주요 사업장 4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주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사업 추진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업장별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실질적인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화엄사지구 환경개선, 지조봉 산악자전거 코스 조

성 등 관광자원화 사업, ▲농촌유학타운, 청년하우스 조성 등 인구 활력 사업, ▲계산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재해예방 사업, ▲서서천 문화체육공간 조성, 봉성근린공원 종합정비사업 등 주민 편의시설 정비 등 지역 발전과 직결된 핵심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또한, 올해 초 진행된 마을순회 ‘구들장 대화’에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한 사업 현장을 찾아,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폈다.

구례/한정호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1일 ‘화순고인돌오토캠핑장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 단위 체험형 프로그램인 ‘화순고인돌명랑캠프’를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총 2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초·중등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자연 속에서 함께 머물며 협력과 소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

화순군, 고인돌오토캠핑장 ‘명랑캠프’ 개최

5월 3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씩 총 2회 40개 팀 대상

다.

첫날은 △가족명랑 운동회 △가족 장기 자랑 △캠핑 콘서트 등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로 구성되며, 둘째 날에는 △보물찾기 △즉석 사진 인화

체험 등으로 마무리된다.

참가 신청은 4월 14일부터 이메일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회차별 20팀씩 총 40개 팀을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과 자세한 내용은 화순고인돌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기운 고인돌사업소장은 “이번 캠프는 세계유산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자연 속에서 함께 뛰놀고, 협력하며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했다”라며, “아이들에게는 신나는 야외 활동의 기회를, 부모에게는 여유로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카메라 뉴스



무안군,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대비 숙박업 간담회 개최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0일 4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을 대비해 숙박업 영업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관내 숙박업 영업주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위생적이고 친절한 숙박업소 만들기 등 협조 사항을 전달하고, 숙박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특히, 많은 방문객이 오는 이번 대축전에 숙박업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원활한 객실공급, 적정가격 준수,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다짐했고, 생활체육대축전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김산 군수는 “모두가 힘을 모아 다시 찾고 싶은 무안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안군 제공



‘영광군, 2025년 집중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11일 영광군청 사거리 일대에서 2025년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는 군청 안전관리과, 건설교통과, 자율방재단 등 사회단체 관계자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풍수해·지진보험, ▲불법주정차 금지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행정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며,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군민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흥군, 군정 정책과 주민안전 전광판 홍보

장흥군은 지역 주요거점인 장흥교 회전교차로와, 군민회관 오거리에 전광판을 설치해 군정 정책 홍보에 나섰다.

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도비를 활용하여 총 2개소(가로 3.5m x 세로 2.2m)의 전광판을 설치했다. 이번 전광판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 4월부터는 군민과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고, 군 군정의 주요 정책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긴급 공지사항과 기상변화에 관한 긴급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군민의 빠르고 정확한 대응을 도울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전광판의 설치에는 야간 경관 조명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밤 시간대에도 활력과 밝기를 더해 도시의 시각적인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이다.

장흥군 제공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